

15개월만에 초저금리 시대 마감...기준금리 0.5→0.75% 인상

가계부채·집값·물가 억제 주목 을 경제성장률 4.0% 전망 유지 소비자물가상승률 2.1%로 올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1년 반 동안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억제로 곁잡을 수 없이 치솟은 가계부채와 집값, 고물가(인플레이션)이 잡힐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을 회의에서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연 기준금

리 0.5%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작년 3월 '빅컷'(1.25%→0.75%)과 5월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내렸고, 이후 지난달까지 아홉 차례나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1월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개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올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측은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전망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1%로 올려 잡았다. 올 들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을 나타냈고,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올해 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추가 인상을 시사하

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p)로 커졌다. 코스피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날보다 18.28포인트(0.58%) 내린 3128.53에 장을 마치며 4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개인이 442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장 초반 순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3645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832억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4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2.66포인트(0.26%) 오른 1020.44에 종료됐다. 개인이 1601억원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1222억원, 기관은 215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리인상, 주택거래 줄고 집값 상승폭 둔화 될 듯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예측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권의 대출 한도 축소 등 움직임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이차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리 인상 폭이 크지 않고 전세시장 불안 등 다른 요인도 많아 집값이 안정되고 하락으로 돌아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영진 지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중전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차 부담이 증가하면서 낮은 이자를 활용한 차입에 의한 주택구매와 자산투자가 제한될 것"이라며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지금 주택시장 과열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에 기인하는 만큼 금리 인상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당장 집값이 하락하기보다 거래량과 상승률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기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2.74%,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금리는 2.94% 수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금리는 3%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번 금리 인상은 그 자체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연내~내년 사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그 추이에 따라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시장에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오늘 금리 인상은 이제 저금리 시대는 지나갔다는 신호탄 격이다. 앞으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담대 시장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예고된 금리 인상이라 시장이 크게 놀랄 것 같진 않다. 현재 주담대 평균 금리가 2.7% 수준인데, 추가 인상으로 3%를 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주택 매수에 심리적인 위축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심교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은 집값 하락을 불러오지만, 이제까지 금리를 올렸다고 집값이 내려간 적은 없는 것 같다"며 "금리 인상 폭도 작고, 전세 등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의 날' 대국민 홍보

서울본부 외벽에 응원 문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제18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한전 서울본부 외벽에 친환경에너지 중요성을 알리는 문구를 내걸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대의 대국민 에너지 인식 전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청정·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필

요성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응원 문구를 실었다. 이번 게시에는 벽면에 광선을 투영하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했다. 한편 지난 2003년 8월 22일 역대 국내 최고 전력 소비를 기록하면서 매년 8월22일을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한전 서울본부는 국내 1호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천 쓰레기 줍기 환경 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나연)은 26일 광주천 서석교부터 양림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태풍과 가을 정마로 천변에 쌓인 쓰레기를 주웠다. <롯데쇼핑 제공>

농협, 디지털 보험 판매 강화 모바일 상품 출시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와 NH농협생명 광주총국은 최근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모바일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1호 가입행사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찬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과 최순동 NH농협생명 광주총국장이 참석했다. 농협생명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스마트뱅킹 앱 가입 전용 '내맘대로 NH건강보험' 상품을 내놓

았다. 암·뇌·심장·간·폐·신장 관련 6대 주요 질병 중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비경신형으로 10년·15년 중 선택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스마트뱅킹을 통해 디지털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600명을 추첨해 NH포인트 1만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시납 보험료 1000만원 이상, 보장성보험의 경우 월 1만원 이상 가입 때 응모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

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600-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28.53 (-18.28)
↑ 코스닥	1020.44 (+2.66)
↓ 금리(국고채 3년)	1.398 (-0.037)
↑ 환율(USD)	1170.50 (+2.40)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정기예탁금

2.2%

2.1%

2020년 출자금

3.0%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신속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